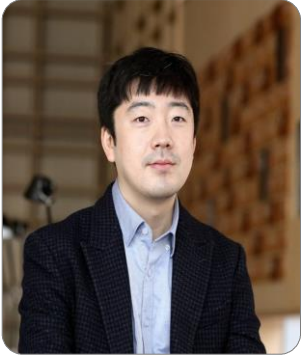




ICDC WEEKLY 2023년 5주차·통권 제178호 |

마스크 의무 조정과 팬데믹의 결말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그 근거

2023년 1월 30일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설은 (1)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방역 정책 조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 유행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4) 높은 면역 수준 등을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아래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 2차 전 국민 코로나19 항체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중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분의 비율은 99%에 가깝고,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신 분의 비율도 70% 수준입니다. 즉 2022-23년 사이 3번의 대규모 유행을 거치면서 국민의 면역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6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시기에도 중환자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도 중환자 병상 운용에도 큰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도 1월에 접어들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의 의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이르게 의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비슷한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단은 팬데믹의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의 시작입니다.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풍토병 정도의 일상적 발생을 말하는 본래의 뜻과 달리 우리 사회는 팬데믹의 종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역학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면 그러한 면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19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개인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의무의 조정은 마스크의 의학적 효용이 없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밀집하고 감염에 노출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엔데믹으로 바뀌는 코로나19의 미래

엔데믹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거나 피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엔데믹은 언제든지 재유행이 가능한 동적 균형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유행마다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피해를 보이는 재유행의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19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감염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감염되리라 예상됩니다. 올해만 최소 3,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00명 이상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지난 3년보다는 적지만 단일 감염병으로는 매우 큰 사회적 피해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엔데믹 전환은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향후 백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연간 접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지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제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데믹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루어진 수많은 사회적 선택이 어떤 효과와 비용이 있었는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할 시간입니다.

끝이 없지만 끝에 가까운 전환점

코로나19가 판데믹이 된 순간부터 행복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불편한 결말에 이제야 도달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판데믹의 종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국민이 최소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